



## 박영민 교수의 원포인트 레슨

박영민  
(예 중위, 학사53기, 본회 전 골프동호회장)

### 상황은 어려운데 샷은 부드럽게 쳐야 할 경우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긴장되어도 스윙은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러나 부드럽게 스윙하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요령은 부드럽게 쳤을 때의 이상적인 피니쉬 자세를 스윙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을 부드럽게 쳤을 때에는 양쪽 팔꿈치가 모두 적당히 굽혀지게 된다. (그림 참조). 따라서 이러한 피니쉬 자세를 만들어 내려면 어드레스부터 양쪽 팔꿈치를 굽히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다른 요령으로는 피니쉬때 클럽 헤드와 왼쪽 귀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양쪽 손도 부드러워져 정확한 피니쉬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처음부터 양쪽 팔꿈치를 굽히고 스윙을 하면 자연히 온몸에 긴장이 풀려 쉽게 스윙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 중요한 순간일수록 머리를 고정시켜라

어프로치 샷을 할 때 엉뚱한 미스샷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헤드업 때문이다. 헤드업을 하게 되면 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공을 정확하게 가격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헤드업은 골프 경기에 있어서는 모든 미스샷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어프로치 샷에 있어서의 헤드업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하면 티샷이나 세컨드 샷은 그래도 다음 샷에서 극복할 기회가 있지만 어프로치 샷을 실수하게 되면 그 결과가 스코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드업을 하지 않는 요령을 습득하는 일이 중요한데 스윙 중에 헤드업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비결은 온몸을 고정시키고 가능한 한 하체는 어드레스때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팔로만 스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머리도 쉽게 고정시킬 수 있고 상체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바디업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사항일수록 머리를 고정시키고 팔로만 스윙을 해야 한다.//



### “핸드 드라이어 쓸 때 손 비비지 마세요”

중국에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강조되는 것이 ‘손 씻기’이다. 비누로 30초 동안 꼼꼼히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씻은 후 물기를 말릴 때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실제 계명대에서 남녀 대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손씻기 후 손 건조 방법에 따라 손에 남은 균 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다. ▲자연건조 ▲종이타월 건조 ▲손을 비비지 않고 핸드 드라이어 사용 ▲손을 비비면서 핸드 드라이어 사용,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앞의 3가지 방법은 손씻기 후 손의 세균 수를 줄였지만, 핸드 드라이어로 손을 비비면서 말린 그룹은 세균 수가 증가했다. 손씻기 전 세균이 282개에서 손씻기 후 447개로 늘었다.

연구팀은 “손을 비비게 되면 모낭에서 피부 표면으로 세균이 이동해 충분한 세정·소독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핸드 드라이어로 손을 건조할 때는 비비지 말고 정지한 상태로 말릴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을 씻을 때 노출되는 환경에는 세균이 얼마나 많을까? 비누·공기·종이타월에 포함돼 있는 균을 집계한 결과, 비누에는 세균 수가 0.8개, 화장실 내 공기에는 1.2개, 종이타월에는 0.8개로 극히 적은 수의 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핸드 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더운 공기에는 58.4개의 많은 균이 검출됐다. 공기 중의 세균이 핸드 드라이어 내로 빨려 들어가고 내부 온도가 높아서 세균 증식이 잘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조선일보(2020.1.28.)//



## 올가을, “독감·코로나19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올 수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대비는 독감 예방접종 등 개인 방역 강화  
60세 이상, 당뇨병·고혈압·호흡기질환 있다면 접종 필수

독감 유행의 계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독감과 코로나 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감과 코로나 19는 전혀 다른 질환이지만, 전염경로와 증상이 유사해서 두 질환이 함께 유행하게 되면 자칫 진단·치료에 혼란이 발생하고 나아가 코로나 19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바로 독감 예방접종과 마스크 등 개인 방역이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코로나 19와 달리 독감은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의 도움말로 확실한 치료법이 있는 독감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갑자기 시작되는 독감, 고열과 근육통, 호흡기 증상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더불어 전신 근육통, 쇠약감 등의 전신증상이 심한 것이 특징으로 기침, 인후통,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게 되면 기관지 손상을 받게 되고, 이로 한 2차 세균감염이 일어나 세균성 폐렴에 걸릴 수 있다. 보통 가을 겨울철에 유행하며, 잠복기는 평균 2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성인의 경우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3~7일 동안 전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전염력이 있는 예도 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를 코로나 19, 전염력도 높아

코로나 19는 38.5도 이상의 고열과 마른기침이 주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두통이나 콧물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보인다. 또 무증상 감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초기 증상이 가볍게 시작되기 때문에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까지의 통계를 보면 코로나 19가 독감보다 전염력과 치명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독감과 코로나 19 전혀 다른 질환

독감과 코로나 19는 공기 중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중증 호흡기질환이라는 점, 고열·두통·기침·콧물 등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는 점 등은 유사하지만 사실 전혀 다른 질환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코로나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원인으로, 코로나 19는 신생 질환으로 현재로서는 백신은 물론 치료법도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독감은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 치료과 예방이 가능하다.

◇트윈데믹 막는 가장 확실 방법 ‘독감 예방접종’

독감과 코로나 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방

법 중 하나는 바로 독감 예방접종이다. 물론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감기나 코로나 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일부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코로나 19 등에는 효과가 없다. 하지만 독감 예방접종과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강화한다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독감과 코로나 19의 동시유행으로 인한 대혼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매년 받아야 하는 독감 예방접종, 9월 말~10월 안에 시행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새로 받아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해 9월 말에서 10월 안에는 반드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폐나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 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경우, △병원에 다닐 정도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대사 질환(당뇨병)자, 신장 질환자, 만성간질환자, 악성종양 환자, 면역저하 환자), △소아청소년 혹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올해는 무료접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지고, 4가 백신으로 예정되어 있어 부담 없이 접종받을 수 있다.

◇독감·폐렴 접종 함께 하면 효과 높아

폐렴은 독감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 폐렴 백신도 함께 접종하는 것이 좋다. 국내 외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감과 폐렴 백신을 동시 접종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입원률과 사망률이 줄었다. 코로나 19 대비에도 필요하다.

폐렴구균 백신이 코로나 19 자체를 예방할 순 없지만 2차로 올 수 있는 폐렴구균 폐렴이나 폐렴구균 감염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폐렴구균 백신은 13가지 균을 방어하는 13가 백신, 23가지 균을 방어하는 23가 백신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은 국가에서 23가 백신을 1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지침 더욱 철저히 준수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모두 밀착해서 가리도록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크의 안쪽면이 오염됐거나 땀으로 축축해졌다면 바로 교체한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경우라면 실내는 물론 자동차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실외라고 하더라도 집회나 공연 등 다중과 접촉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때는 음식 섭취 전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한반도 안보 우주로 확장

조흥제 (예 소령, 학사84기,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 연구위원)



군 최초의 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가 7월 31일(한국시간)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를 계기로 군사위성

보유의 의미와 우주전을 준비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본다. 1957년 구소련에서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후 62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1일에는 최초의 군사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발사했으며 같은 달 31일에는 소위 지구정지궤도(지구동기궤도)로 불리는 3만 5786km 상공에 안착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 군사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방송통신, 지구관측 등 많은 부분을 우주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우주능력과 위성정보가 전쟁 승패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상·해상·공중의 3차원 공간에서 물리적 파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현대전은 정보통신 및 무기체계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전이 될 것이다. 또한 첨단화된 정보자산과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정보전,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정밀타격전, 우주전이 될 것이다.

우주전은 우주를 이용해 전방위와 지구 차원에서 수행하는 군사작전을 말한다. 오늘날 우주작전은 모든 지상작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정보제공, 정밀유도, 전장환경 인식 등 많은 작전적 요소가 우주의 위성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1991년 발발한 걸프전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군사력은 우주자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정보수집, 지휘통제, 정밀타격, 기상관측 등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의 군사력은 위성을 비롯한 우주자산에 의존하고 있다. 1967년 우주법 체결과 유사한 시기에 발사된 위성은 벌써 그 당시 미국과 구소련의 방위시스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됐고 1990년대에 우주는 군사전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우주장비의 군사적 체제 통합은 1991년 최초의 우주작전이라고 불리는 걸프전 기간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걸프전 기간 두 개의 방어시스템 위성이 군용 통신의 거의 80%를 다뤘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 2007년 10월 첫 달 탐사위성인 창어 1호 발사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일방적 지위에 도전하기 위해 '우주굴기'를 선언하면서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개발 목표는 대내적으로 국민 통합과 공산당의 권위 회복 기회이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독점적 우주지배와 군사적 패권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또한, 군

사적으로 우주에서 정찰·감시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미래 우주전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 우주 강국이었던 러시아는 구소련 연방의 붕괴 이후 체제 전환기 경제 악화로 우주분야 개발이 침체돼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 회복단계에 들어서면서 국가 위상 유지와 더불어 우주정책에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일련의 국가우주정책문서들을 발표하고, 조직과 예산을 정비해 우주 관련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우주정책 부문에 대한 관심은 이미 현대전의 변화를 예견한 군사혁신헌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주변국 중 중국, 북한 위협을 계기로 일본 안보정책의 포괄적 기반지침인 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을 확정했다. 2015년 1월 JAXA도 일본의 안전보장상 우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신 우주기본계획을 결정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산하에 최초 우주부대를 발족했다. 방위성과 항공자위대는 우주영역 전문 '우주부대(100명 규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12년 12월 은하 3호라는 우주발사에 성공했다. 이 은하 3호의 발사체는 장거리 ICBM 개발의 발판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 위성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란, 인도 등도 국방우주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아나시스 2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임무수행은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아나시스 2호 발사는 미래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군사력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나시스 2호는 전장의 '눈'과 '귀'가 되는 통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군의 지휘통신, 합동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민간위성에 비해 적의 전파 교란행위(재밍) 회피 능력이 3배 이상 강화됐으며, 데이터 전송용량도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7월 28일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4차 개정에 한미가 합의함으로써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일정 사거리 이상의 미사일에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우주발사체 등 비군사 분야에서조차 연구·개발·활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독자적 방위능력 향상은 물론 급변하는 동북아 전략환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선견·선결·선타(先見·先決·先打)라고 하는 전장의 기본원칙에 더욱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더불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하는 냉전 시대에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전력 구축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번 아나시스 2호 발사를 계기로 우리도 우주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작성, 이에 근거해 국방우주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는 물론

중국, 일본의 국방우주력의 발전은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비대칭전력으로 인해 힘의 균형을 깨트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에 대비, 사전 정보 획득과 정밀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력 구축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다. //

## 미래전장과 방공유도탄사령부의 사명

박종철 (대령, 공군방공유도탄사 운영계획처장)



세계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군사 강국들의 신규 무기체계 개발과 막대한 예산 투자 사례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우리에게도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제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변화될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굳건한 방어태세를 확립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와 같이 최근 공군은 노후한 호크 지대공 무기체계를 대체해 국산 방공 유도무기인 천공을 전력화한 바 있다. 물론 천공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이지만 장기적인 운용과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운용부대 지휘관들과 전술도의를 통해서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술과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 무기체계 운용 측면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장비 운용 방안, 체계성능 검증, 성능개량 요소 등을 꾸준히 식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 연구개발기관과 정례적으로 기술협의 회를 열어 현재의 기술 수준과 발전 동향을 조망함과 동시에 작전 요원들은 요구 수준을 높이고, 과학자들은 구체적인 개발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 소통의 장을 내

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세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제공하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기술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이 구현 가능한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민간 분야에서만 유행하는 경향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도 부지런히 관련된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도입한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지속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의 경미한 성능개량부터 진화적 성능개량, 신속 시범 획득 방안까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변화하는 작전환경에서 일약(一躍)하고, 작전운용성을 만족시키는 무기체계 도입에 중단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각 분야의 국방예산이 경제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우리의 검증된 방어 무기체계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최근 공군은 창군 100년을 대비한 항공 우주력 발전구상인 에어포스 퀀텀(Quantum) 5.0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미래전장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공군에서 이립(而立)을 맞이하는 방공유도탄사령부도 이러한 조류를 기회로 삼아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명확히 인지하고 작전 능력과 무기체계 운용 역량을 신장시킬 것이며, 압도적인 전투 능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미래의 항공우주 전장을 선도하는 우주 미사일 작전의 국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

(※본 내용은 국방일보 2020.8.4.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 산사태와 번개

전대길 (병 176기, ㈜동양 EMS 대표이사, 국제 PEN한국본부 이사)



〈천장지제 이누의 지혈계(千丈之堤 以婁蟻之穴潰)〉  
“천 길 높은 독도 개미나 땅강아지의 조그마한 구멍으로 인해 무너진다”.

〈백척지실 이돌극지연분(百尺之室 以突隙之烟焚)〉

“백 척 높이의 고대광실도 아궁이의 조그마한 불씨 하나로 인해 타버린다”.

이는 법치주의를 주창한 중국 전국(全國)시대 말기 한(韓)나라의 공자(公子), 한비자(韓非子/BC280~233)의 유로편(諭老篇)에 나온다.

지난 6월부터 50여 일이 넘는 긴 여름장마로 인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가옥과 농

경지 침수 피해가 컸다. 섬진강물 범람으로 인한 경남 하동지역 화개장터의 가옥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다.

경기도 철원지역, 가평지역과 전남 구례·곡성 지역 등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토사와 낙석으로 철길과 자동차 길이 끊어지고 숙박용 펜션(Pension) 동(棟)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치산치수(治山治水)의 중차대함을 새삼 일깨워 준다.

‘산사태(山沙汰)’를 ‘랜드 슬라이드(Landslide), 애벌란시(Avalanche)’라고 말한다. 네팔 히말라야 겨울 산에서 겹겹이 쌓인 눈이 경사면을 따라 무너져 내리는 현상인 눈사태를 불어에서 유래한 ‘애벌란시

(Avalanche)’라고 부른다.

‘모래 사(沙)+ 지나갈 태(汰)’자의 ‘사태(沙汰)’란 호우, 지진, 화산에 의해 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암석이나 토양이 붕괴되는 현상이다.

산의 경사가 심할수록 산사태(山沙汰)가 일어난다. 산사태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호우(豪雨) 때문이다. 많은 양의 빗물이 침투해서 암석면 사이에 경계가 생기고 그 상부가 무너진다. 태풍이 올 때나 장마철에는 산사태가 일어나기 쉽다. 산사태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

산사태를 나타내 보이는 전조(前兆)나 징후의 4가지 현상이다.

첫째,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는 땅속에 지나치게 많은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

둘째,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는 지하수가 지나가는 토양층에 이상이 생긴 현상이므로 위험하다.

셋째, 갑자기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는 현상이 나타나면 산사태가 발생할 전조이다. 넷째,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리면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대피하고 긴급하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

아래 9가지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1. 하루 강우량 140mm(시간당 30mm) 이상이거나 이틀간 누적 강우량이 200mm 이상인 지역,
2. 식물이나 생물이 교란되거나 자라지 않는 지역,
3. 급경사 지면과 평행하게 발달한 기암반이 존재하는 지역,
4. 풍화토층에 진흙이 없어 토양 응집력이 약한 지역,
5. 산지 경사면에 물웅덩이가 있는 지역,
6. 단층 또는 지각 변동 요인이 존재하는 지역,
7. 풍화토층이 영성하고 거칠어서 빗물 침투가 쉬운 지역,
8. 산지에 나무와 식물지표를 낮게 덮는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이 없는 지역,
9. 산지 경사가 급한 지역

집중 호우가 내릴 때 낙뢰(落雷) 사고도 빈번하다. 번개(雷)의 속도는 초속 100,000 Km, 시속은 360,000,000Km이다. 번개 칠 때 전압은 10억 볼트이며 번개 치는 순간의 온도는 태양 표면온도의 5배(倍)인 약 30,000℃ 이다.

번개의 모습은 직선보다는 삐뚤삐뚤하게 우리 눈에 보인다.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量)인 전하(電荷)가 전압(Voltage)이 높은 곳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 공기를 뜨겁게 달구면서 순식간에 공기가 팽창하는데 이 공기의 진동이 바로 천둥이다.

미국에서 2011년 한 해에 번개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약 200명이라고 한다. 번개가 치고 나서 3초 이내에 천둥소리가 들리면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번개가 친 곳이 자신의 위치로부터 반경 1km 이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니까 금속 물질을 갖고 있으면 번개에 맞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번개에 맞을 확률을 결정하는 건 높이이며 재질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에 낙뢰에 대처하는 요령이다. 평지나 산위에서는 몸을 가능한 낮게 하고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피하는 게 좋다. 벌판에 있는 나무나 키가 큰 나무는 피하고, 낫시대, 골프채, 우산 등 긴 물건은 땅에 내려놓고 엎드리거나 자세를 낮춘다.

송신탑이나 전봇대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다. 자동차에 있을 때에는 창문을 닫은 뒤 시동을 끄는 게 좋다. 집 안에서 전화기나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둔다.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언덕이나 물과 들판과 같이 열린 공간은 피하며 야외에서 대피할 때에 사람의 간격이 1m 이상 떨어지는 게 좋다.

<신목여전 천청여뢰(神目如電 天聽如雷)>란 “귀신의 눈은 번개와 같고, 하늘이 듣는 것은 우뢰와 같다”는 말이다. 어두운 방 안에서 자기 마음은 속일 수 있으나 귀신 눈으로 볼 때는 번개와도 같이 밝게 보인다. 사사로이 하는 말일지라도 하늘이 들 때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린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 //

(Buddha,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도 불렀고 바로 부처님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신분 때문에 차별받았던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불교를 무척 반겼다. 브라만의 권위에 불만을 갖고 있던 크샤트리아도 매우 환영했다. 형식적인 제사 의식에 저항하던 바이샤도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 정치와 경제가 발달하면서 성장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의 성장은 불교의 성장과 함께했다. 현재의 인도는 불교 국가가 아니지만 불교의 등장은 인도를 사상과 종교철학, 문화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나라로 만들어주었다.

불교가 탄생한 지 300여년이 흐른 후 인도 땅에 찬드라굽타가 세운 ‘마우리아’라는 통일왕국이 처음 들어섰다. 인도 남동쪽 칼링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모두 통일했다. 그리고 제3대 왕인 아소카는 이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100여명의 형제와 권력 다툼을 벌였고 99명의 형제를 살해한 끝에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이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

아소카는 왕이 된 후 영토를 넓히고자 칼링가를 점령하기 위해 70여만명의 병력과 코끼리 9,000여마리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 10여만명이 죽고 15만여명이 포로가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아소카는 칼링가 전투를 계기로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비(慈悲)’와 ‘평화(平和)’라는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소카가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인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생명을 살리고자 사람과 동물을 위한 병원이 세워지고, 육식이 금지되었으며 각 지역에 도로가 건설되고 여행자를 위한 숙소도 생겼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도 들어섰다. 길에는 과일나무를 심어 언제든 나그네가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곳곳의 우물과 저수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백성들에게 강조했다.

아소카 왕은 이러한 내용을 절벽의 바위나 돌기둥에 새겨 널리 알리도록 했다.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수십 개의 돌기둥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르나트에서 세운 사자 장식 돌기둥은 오늘날 인도의 상징이 될 만큼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또한 부처와 관련된 유적지를 순례하고 돌기둥을 세웠다. 오랜 세월 방치된 룸비니가 부처의 탄생지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아소카 왕이 세운 돌기둥

덕분이었다. 그는 부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찾아내 8만 4,000개로 나누어 각 지역에 전하고 사리를 보관하는 스투파(탑)를 곳곳에 세웠다. 그리고 불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지중해 주변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등으로 파견했다. 아소카 왕의 아들과 딸이 동남아시아의 실론(지금의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하면서 미얀마, 태국까지 불교가 퍼져 나갔다. 욕심을 버리고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 교리에 아소카 왕의 노력이 더해져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한때 잔인한 왕의 상징이던 아소카는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왕이 되었다. 지금도 많은 인도 사람들이 아소카 왕을 인도를 대표하는 왕으로 기억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위대한 왕을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고 부르는데 아소카는 속세(俗世, 불교에서 일반 사회를 이르는 말)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아소카 왕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우리아 왕국은 멸망하지만 불교는 계속해서 퍼져 나갔다. 이후에 들어선 쿠산 왕국의 카니슈카 왕은 비단길을 따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불교를 전파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의 일이다. 삼국의 왕권이 아직 강하지 못하고 백성은 해와 달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현상을 훨씬 두려워하던 때였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준 높은 종교가 필요했고 왕의 권위를 세워줄 이론이 필요했다. 4세기에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고 신라는 6세기에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삼국은 불교를 받아들여 “왕은 곧 부처”라는 불교 사상으로 왕권을 강하게 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한편 문화의 수준도 높아졌다.

금년은 부처님이 오신지 불기 2564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매년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지키며 이날 연등행렬, 법회, 방생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한달간 연기되어 5월 30일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연등축제(燃燈祝祭)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민속놀이와도 결합해 전통문화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불교와 관련된 유적지가 많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유적지라면 경주 석굴암(石窟庵)을 꼽을 수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석굴암은 서기 750년경 신라 경덕왕 시대에 지어졌는데 당시의 건축 기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과학적으로 설계된 세계 유일의 인조 석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

## 불교의 탄생

채낙호 (예 준위, 준사관 28기, 광주지부 고문)



지금의 인도와 네팔 국경 부근 히말라야 산기슭에 작은 나라가 있었다. 기원전 563년 음력 4월 8일 이 나라의 왕 비였던 마야 부인은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가던 중 네팔의 룸비니라는 곳을 지나가다 아름다운 호수를 만났다. 그 호수에서 몸을 씻고 잠시 쉬는 사이 갑자기 진통이 찾아와 마야 부인은 나무 아래서 아들 고타마 싯다르타를 낳았다. 이 아이는 먼 훗날 ‘깨달음을 얻는 자’라는 뜻의 ‘부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비(慈悲)와 평등(平等)의 종교 불교(佛敎)를 만들었다.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어날 무렵 철기 문화가 발달한 새로운 변화의 시기였다. 철로

만든 무기가 발달하면서 전쟁이 잦아지고 크샤트리아 계급이 활약하기 시작했다. 바이샤 계급은 철기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해 농업을 발전시켰고 남는 물건들은 팔아서 상업도 발달했다. 바이샤 계급이 바친 막대한 세금으로 크샤트리아는 전쟁을 하고 나라의 조직을 만들어 왕과 귀족이 되었다. 두 계급은 서로 힘을 합쳐서 상업을 보호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수행(修行)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고타마 싯다르타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되었으니,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야만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解脫)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의 신분 차별에 반대하고 자비와 지혜를 강조했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석가모니(釋迦牟尼), 산스크리트어로 붓다

## 이 가을,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안호원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목사, 칼럼니스트, 방송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쓰는 말 중 ‘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천차만별로 해석된다. 떡이란 원래 곡식가루를 찌거나 빻아 만든 동양권의 고유 음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칠 머리를 못 감았더니 떡이 됐네.”라고 말할 때의 떡은 머리가 뒤엉켜져 잘 빻

어지지 않는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떡 주무르듯이 하는 구나” 하면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린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특히 “떡을 친다”는 넘칠 정도로 양이 충분하다는 뜻도 있지만 남녀의 교합을 속되게 표현할 때도 쓰이는 말이며 “떡이 되도록 술을 퍼마셨다”고 하면 인사불성의 만취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양한 만큼 예부터 떡에 얽힌 속담이 많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

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떡 먹는 배 따로 있다”는 속담도 있다. 이밖에도 “떡 주고 뽕 맞는다”느니 “떡 달라는데 돌을 준다.”는 등 세상인심의 야박함을 빗댄 속담도 있다. 또 “떡이나 해 먹 을 세상”이라니 “떡 해먹을 집안”이라는 욕설도 있다. 이 말 뜻은 굶은 일반 계속 일어나는 세상이나 일이 안 되는 집안을 지칭할 때는 자조적인 말이 되기도 한다. 떡을 해 놓고 고사라도 지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쁘고 풀리는 게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떡이란 절기에 맞춰 해 먹는 ‘절식’이자 ‘별식’이다. 특히 동양권인 우리나라의 경우 ‘설날’은 가래떡, ‘정월 대보름’은 약식, ‘칠석’은 백설기, ‘추석’은 송편, ‘상달’은 시루떡 등 우리 조상들은 명절과 절기에 맞춰 갖가지 떡을 만들어 먹었다. 뿐만 아니라 인심이 좋아 생일이거나 고사(古祠)를 지내거나 ‘이사’를 했을 때도 떡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미덕을 보이는 민족이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설이나 추석, 연말이 되면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때 ‘떡값’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또 의미를 다는 사람도 없이 떡값이라는 의미로 가볍게 받아들인다. 즉 잠재적인 습관 속에서 무슨 때가 되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당연히 떡은 해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의 떡값이 세태를 반영한 탓인지 명절이 와도 각종 이권이나 입찰 등 필요에 따라 사례비 명목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그런 인심(?)마저도 없어졌지만, 얼마 전 중영한 정치야심을 드러내는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느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은 역시 ‘과욕’이구나 하는 것이다. 여하튼 떡값의 의미가 요즘 들어 타락되고 왜곡되기는 했지만 떡값의 의미는 나눔의 미덕을 상징하는 말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이맘때만 되면 늘 허전한 가을을 경건함으로 채워주는 가을의 기도가 떠오르곤 한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을 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다. 낙엽이 지는 때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묻힌 추억을 끄집어내기 마련이다.

오래도록 잊었던 태(胎)의 소리.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는 절절한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만인을 사랑한 ‘예수’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했다. 가을은 누가 뭐라 해도 결실의 계절이자 추석의 계절이다. 따라서 추석은 우리에게 ‘고향’이자 ‘조상’이며 ‘역사’이고 ‘자연’이다. 해마다 추석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메마른 일상을 잠시 멈추고 조상의 흰 뱀가 시퍼런 역사로 누워있는 자연으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삶을 정갈하게 씻어내는 동심(童心)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운 고향을 찾아 길을 떠났다. 물론 과거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을 찾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추석날 조상의 무덤 앞에 엎드려면 누구나 경건한 고독에 잠겼을 것이다. 마른 잎이 떨어지는 양상한 나뭇가지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 치열한 고독의 무덤 앞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省察)했을 것이다. 격랑처럼 굽이치던 고뇌의 세월, 순수했던 명상의 언저리를 서성이며, 어쩌면 세속(世俗)의 탐욕(貪慾)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마음 아파할지도 모른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비옥한 시간을 바쳐 경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아마도 사랑의 품성(品性)이 아닐까. “나는 온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못 사람을 위해 헌신한 고(故)테레사 수녀의 말이다. 추위와 함께 험벗고 굶주린 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내 이웃에게 나눔의 미덕을 상징하는 떡이 전달되며 더도 덜도 말고 ‘팔월 한가위만 같아라.’하는 말처럼 풍요로운 추석을 보냈을 줄로 생각한다. 오직 한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무래도 호을로 있는 가을, 온갖 은원(恩怨)을 품어 안은 조상의 무덤가에 이르러 철세만도 못한 내 미숙한 녀일 망정 감히 하늘을 우러르며 풍요한 추석의 기원(冀願)을 읊조려야 할 것만 같다. 그러나 울지는 말자. “기도하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홀로 있게 하소서”//

로운 모습으로 즐거움을 주기도 했다. 솟을주 옆길을 따라 천황봉에 오르면 통신 안테나가 있고, 통신시설물 옆길을 돌면 칼바위 능선이 나온다. 칼바위 능선은 동학사와 갑사를 잇는 금잔디고개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미 등산객들이 설치해 둔 밧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면 수십 미터의 칼바위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특히 눈이 쌓인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에는 목숨을 담보로 건너야 하는 능선이다. 눈이 쌓인 바위 등을 엉거주춤 건다 보면 수백 미터의 아래를 보게 된다. 눈이 쌓여 있지 않아도 무섭기는 마찬가지다.

간혹 능선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발을 헛디디면 수백 미터 아래의 낭떠러지 삶은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어려운 능선의 등반이나 빼어난 주위의 비경 때문에 사람들은 평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고향을 자처한다. 그것이 군사지역으로 묶여 민간인들과 달리 누릴 수 있는 계룡대 군인들의 별다른 특권인 양 나는 사계절 빠짐없이 다녔다.

계룡산의 매력은 사무실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계룡산은 봄이면 아래에서부터 예쁜 여류화가 물감을 칠하듯 매일 한 뼘씩 파란색이 정상으로 향해 올라간다. 그 푸름의 조화가 신기하기까지 하다. 다 오른 연둣빛 푸름이 짙어지는 여름이면 장맛비가 내리고 솟을·암용 두 곳의 용추는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다. 가을

이면 산 정상에서부터 옷을 갈아입듯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들어 내려온다. 단풍이 다 내려오면 겨울이다. 사무실에 앉아 계룡산을 바라보면 사계를 느끼게 되고, 그 돌아가는 사계 속에서 계절별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아름다운 계룡산 언저리에 근부하면서 계절마다 변하는 산의 변화를 두고 인간으로서 어찌 산에 오르려는 욕망이 없겠는가? 계룡대를 거쳐 간 장병들은 아무리 산을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이라도 계룡산을 오르지 않고는 계룡대를 떠나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내가 특히 좋아했던 계룡산의 계절은 가을이었던 것 같다. 어려운 칼바위를 타고 내려오다 만나는 연천봉을 곁에 두고 금잔디고개로 내려오면 삼불봉과 관음봉을 거쳐 마지막 장군봉에 이른다. 가을에는 바위 등 사이마다 위태롭게 서 있는 떡갈나무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겨울을 기다린다. 간혹 능선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에 하얀 갈기흔드는 갈대꽃을 만나기도 한다. 굽이굽이 지나는 곳마다 가을은 익고 있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겨울은 이미 끝나는 한해의 마지막이다. 그 끝은 다음을 기약한다. 계절의 수레 속에 산은 인간을 피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한다.

지금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노년의 능선길, 가을비에 젖은 계룡산이 쓸쓸해 보인다.//

##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두 개의 타이틀을 거머쥐다!

원종필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군무주무관)



공군사관학교에는 보물이 많다. 씩씩하게 교정을 행진하는 생도들이 가장 큰 보물이고, 날개처럼 학교를 감싼 든든한 산의 능선들, 그 속에 담긴 하늘과 바람과 비행기 소리도 공사의 보물이다.

다른 종류의 보물도 있다. 공사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역대 공군의 항공기들이다. 그중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최초의 전투기 등 몇몇의 ‘최초’가 있다. 내가 학예사로서 박물관에서 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이 ‘최초’를 찾아주는 일이다. 아니, 사실은 그 ‘의미’를 찾아주는 일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국립중앙과학관으로부터 공문 한 장이 도착했다. 과학 분야의 자료 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보존·활용하기 위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제도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공군에서 지정될 것은 자명했다.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활호!

1950년대 초반 독립운동가이자 공군 창설의 주역인 제2대 공군참모총장 최용덕 장군은 공군의 비행기 개발을 공군 발전의 한 축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1953년 당시 공군기술학교 교관인 이원복 소령과 정비사들은 장비와 물자의 부족 등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국산 항공기를 완성한다. 1954년 4월 이 항공기는 세상에 공개되며 ‘부활(復活)’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전쟁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찬란한 미래를 기

원하는 뜻을 담은 것이다.

부활호가 만들어진 1953년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다. 이때 공군에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간 문화재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근현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의미’를 찾아 줄 기회가 온 것이다.

신청서 작성은 일사천리였지만 현장조사가 고비였다. 당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부활호의 복원이 논란이 됐다. 사실 부활호는 1960년대까지 연습기로 사용되다가 자취를 감췄다. 그 후 2003년 한 신문사에서 이원복 선생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널리 알려졌고, 우연히 그 기사를 읽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 퇴직자의 제보로 학교 지하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부활호를 찾을 수 있었다. 그 부활호를 공군에서 수리·복원해 다시 살려낸 것이다.

나는 부활호가 ‘부활’한 경우는 오히려 놀라운 것이지, 부활호 자체의 진정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당시 제작에 참여했던 이원복 선생과 오늘날의 공군이 힘을 합쳐 복원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 지난 7월 29일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국가등록문화재’ 부활호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돼 두 개의 국가적 타이틀을 가진 유산이 됐다. 그러나 열개의 타이틀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활호가 국민 모두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본 내용은 국방일보 2020.8.4.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 계룡산 가을 단상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 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계룡산 능선에 올라서면, 비껴간 시간의 행간을 따라 쓸쓸히 돌아오는 바람도 외롭다. 잿빛 하늘은 매일 드높던 가을을 밀어내고, 또 하나의 가을을 베어낸 황산벌에서 으스스 떨리는 허전함이 곧 눈발을 밀고 올 기세였는데, 아쉬움인지 나뭇가지마다 남아있는 목숨 질긴 단풍잎에 젖은 생각처럼 빗방울이 맺힌다.

내가 계룡산과 처음 만난 것은 1989년 7월 9일이었다. 620사업으로 육·공군분부가 이전이 되면서 정년 퇴역하는 2005년까지 깊은 인연을 맺었다.

계룡산에는 용추 두 곳이 있는데, 솟을이

승전했다는 솟을추와 암용이 승전했다는 암용추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솟을추와 암용추는 지하로 능선을 하나 사이에 둔 용추이기는 하나 서로 통해 있다는 설이 있다. 여하튼 두 용추는 천황봉을 두고 경쟁을 벌이듯 발원한 물을 금강으로 흘러보낸다. 두 곳 모두 가을이면 화려했던 여름날 웅장하게 내리쬐던 물줄기는 어디로 가고 찾아드는 계곡을 따라 늙은이 오줌 줄기만큼의 물이 겨우 명맥을 이어간다.

지금은 드나들 수 없는 군사지역 안의 두 용추를 따라 천황봉 오르던 길을 15년이 넘도록 매주 1회 이상은 오르내렸다. 수요일은 체력단련의 날로 부대원들과 오르고, 주말이면 남편 바라기를 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올랐다. 사계를 두고 계룡산의 변신은 새

### 세상에 오직 당신만을

최미자 (공사14기 김상배(예 중령) 회원 가족, 재미 수필문학가, 칼럼니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탓일까. 늘 바쁘다던 남편의 한 친구 분이 우리 그이에게 자주 소식을 전해온다.

사실 나는 금년 초인가, 남편에게 한 달에 한번쯤은 미국에 한 분 있는 동기생이니 안부 좀 드리라고 조언했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병환의 아내를 보았으니 어떻게 사시는지 위모하는 의미였다. 상상하건데 그분의 성격도 좀 무심할 정도로 인간관계엔 소극적인 내 남편과 비슷한 분 같아서였다.

그런데 요즘 동부와 서부에 사는 두 남자가 종종 전화로 긴 수다를 떨고 있다. 얼마 전에도 두 시간 남짓 전화하는 걸 곁에서 보면서 나는 피식피식 웃으며 흐뭇했다. 전화가 끝나면 남편으로부터 그의 친구이야기를 조금씩 전해 듣는다.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그리고 가족이야기 등 화제가 무수히 쏟아지고 있어 나는 뜻밖이었다. 그래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우리들 재미가 아니던가.

통화가 끝날 때마다 난 남편에게 격려한다. “얼마나 좋아요. 서로 특기가 달라서 학창시절은 친하지 못했어도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귀한 인연인데, 앞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날도 얼마나 있겠어요?” 맞는 말이라며 남편도 고개를 끄덕인다. 몇 해 전, 필라델피아에서 잘살던 남편의 동기생 친구가 그렇게 놀러오라며 초청을 여러 번 했는데도 우리 방문을 못했다. 그토록 마음이 너그러운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기에 지금도 아쉽지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서로의 출근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때 소개를 해주신 남편과 결혼했다. 공군, 해군, 육군 사관학교는 1960년대 입학정원이 60여 명이어서 정말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모였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대학교에 갈 학비가 없어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효자들이 지원한 곳이 사관학교였다. 경쟁이 심해서 사관학교에 불합격되면 오히려 서울 대학교로 지원했던 시절이었다. 요즘처럼 수백 명이 입학하는 사관학교가 아니었다. 또한 그들은 국가관이 애매한 군인들이 아니라, 역사를 잘 배웠기에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심으로 가득 찬 씩씩한 사나이들이었다. 사관학교에서 뛰어서 관악산 행군으로 단련된 군인들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계급 사회인지라 엄청난

경쟁을 하기에 혹은 상처를 받기도 했다. 좋은 선배와 친구를 만나면 이끌고 격려해주며 순조롭게 출세의 운을 타기도 하지만, 악연을 만나면 평생 가슴앓이를 하며 행운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제대를 해야만 했다. 또한 팔자소관인지 관직 운도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었다. 요즘은 세상은 타락을 해서인지 별난 권모술수와 재주를 부리면서 정치인들은 높은 관직을 탐하는 뻔뻔한 인간들도 많아 미디어를 통해 보거나 읽으면서 나와 남편은 긴 한숨을 쉬기도 한다.

다행히 친구인 여기 두 남자는 직장 운은 별로였지만 아내복은 있다고 자부하며 사는 것 같다. 때론 내가 먼저 그분의 전화를 받다 그의 가정사를 직접 듣기도 한다. 그는 학창시절에도 예천비행단에서 F-5 비행기 창설에 가슴에 다는 휘장을 창안하는데 참여했으며 그 후 팬텀기 조종사였다. 또한 대한항공에서 십년 가까이 근무하고 은퇴했다. 하지만 한국에 살 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 가족을 데리고 1982년 미국으로 유학 왔다는 사연이었다. 연세대학 간호학과를 나온 아내는 미국에서 어느 날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야했다.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았는데, 두 자녀를 잘 키우고 결혼을 시킨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장녀는 자랐던 시카고의 중고등학교에서 최우등생이었고 남동생과 함께 MIT를 졸업했다.

그리고 줄곧 텍사스 큰 정유회사의 고위 관직으로 일하고 있다 한다. 갑자기 암으로 어머니가 병석에 누우니 부모 가까이 남동생이 직장을 옮겨 살도록 해놓고, 딸은 아버지의 경제적 부양을 맡는다고 했다. 아내가 떠난 후론 남편은 교회에서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지 상태이다. 주위에서는 그에게 재혼을 권하지만 그는 “무슨 이 나이에”라면서 완강히 거절한다고 했다.

나는 세상에 이런 남편도 있느냐며 그의 순애보에 감동할 수밖에. 그리고 아주 가끔 나는 한국의 연속극을 보는데 언제부터인가 남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는 부도덕적인 장면을 보면서 매우 놀랐기 때문이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의 침상 머리 위에 둔 아내의 영정 앞에 영어 글을 써놓고 아침저녁으로 살아있을 때처럼 아내와 대화한다고 했다. “Honey, I love you forever. I have only you and I always thank you for giving me two big treasures, those are Ileen and Shon.” 실제로 두 자녀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는 든든 효녀와 효자인 것 같다.//

### 코로나 19 때문에

이윤우 (예 소령, 공사 6기생 회장, 한국항공기술협회 이사)



거리두기 비대면  
사람접촉 금지되고

사회활동 경제활동  
갑먹고 위축되고

폐업사 실업자  
밤안개처럼 밀려오니

한때의 풍요  
바람앞에 등불이네

코로나 19에 멍든  
가슴들 모두 품고

낙하산 타고  
하늘 높이

바람따라  
훨훨



### 추억

김종윤 (예 소령, 부산지부장)

아득한 옛날  
하늘처럼 열리고  
태극기 표지한 C-54  
하늘에 매달려  
몸부림 치던 K-1 AIR BASE

그러나 이제 다시 들리는  
폭음과 폭음  
푸른산이 바다를 연모해도  
차마 가슴만 두근거리고  
함께할 영원의 길동무 아닐바엔  
이슬에 맺힌 사랑보다  
아름다운 이별이 좋구나

내 목숨 다 바쳐도  
아쉬움이 없던 그 날이어  
이제는 아지랑이 가물거리고  
풀냄새 포근해도  
내 여기 청춘을 묻어둔  
꽃 피는 땅에 가난한 옛 자취를 심어 놓고

먼 훗날  
추억타고 오는 백발에 물어 보리라  
보라매 소식을 //



※ 본지에 기고된 글들은 본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보라매지 원고 모집 안내

보라매지 발간에 따른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하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원고모집분야: 지부/지회소식, 회원기고, 회원/단체 동정 및 광고 등
- ❖ 제출내용 및 방법
  - ▶ 지부/지회소식: 매 분기 중 지회 활동내용 및 사진을 본회 홈페이지 지회소식란(커뮤니티)에 올려놓거나 직접 우편물로 발송 및 메일(kafva@airforce.ne.kr)로 발송
  - ▶ 회원기고: 수필, 감상문 및 시 등 자유 1300자 내외(사진포함 위함) 메일로 발송)
  - ▶ 동정: 개인 신상변동/단체 활동 및 출판물 발행 등
  - ▶ 광고: 본회 조직국장과 사전 협의
  - ▶ 제출시기/기한: 수시/매분기 말월 20일까지